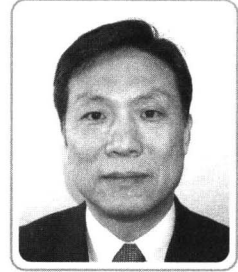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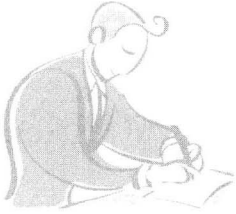


사업장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장 성 훈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향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은 세계 인구역사상 유래가 없는 빠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관련하여 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4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병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만성 질병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흡연, 나쁜 식습관(영양), 운동부족, 음주, 스트레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만성 질병을 가진 근로자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자연경과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에 작업관련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도에 직업성 질병자는 모두 5,57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직업병자는 1,538명, 작업관련성 질환자수는 4,038명으로 전통적 직업병인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 소음성 난청 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뇌혈관 및 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등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직업병 예방외에도 만성 질병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 측정이 그 자체의 수행여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후 건강관리에 이용되는 것이 부족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증진 사업은 1996년 12월 안전보건법 제4조에 법으로 규정하였고 1997년 10월에 동법의 시행규칙 제3조가 마련되었으며 1998년 2월 노동부 예규 제367호에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이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의 건강증진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결근율이 낮아지고 근로의욕이 생겨 생산성이 향상되며 의료비 감소와 재해보상비가 감소하고 복지 향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된다.

사업장 건강증진이란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및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사업장의 조직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기 개발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루어나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보건 문제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논하여 정한 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동팀을 구성하여 그 사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주로 운동, 금연, 절주, 영양, 정신보건 등이거나 미국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 관련 활동 내용은 재해 및 상해 예방, 운동 및 체력 향상, 금연, 스트레스 관리, 금주, 요통, 영양, 고혈압, AIDS, 콜레스테롤, 정신건강, 체중 관리, 암 등이 있다.

사업장에서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려면 최고경영자와 중간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 대표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목적 또는 사업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의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을 기획할 때 사업장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감소시키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획해야 한다. 근로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우선 과제를 선정하기도 한다. 사업을 실행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큰 사람들을 선정하여 사업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체력측정, 체성분조사 등을 시행하며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개인의 건강위험요인들을 파악한 후 개인에 맞는 운동, 영양 처방 등 건전한 생활습관으로 교정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평가는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다시 정책결정으로 돌아가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사업장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내에 자체 산업보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교육을 담당할 건강증진 전문가육성 교육기관을 상시로 운영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전문가 육성기관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교육자료 및 사업장의 규모나 유해요소별로 세분하여 만든 성공사례들을 필요한 사업장에 제공한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즉, 상담실, 체력 단련실 등의 공간, 체력측정기, 체지방측정기 등의 장비, 운동처방, 영양처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구입을 위하여 저리 용자를 사업장의 대응투자에 맞추어 지원해 줄 것을 바란다. 넷째, 근로자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상담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체력측정, 영양 및 건강관련 행동 설문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은 여러 분야의 건강증진 자체 전문가들을 가지지 못하므로 중소기업 사업장끼리 전문가 인력풀을 형성하여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